

‘러시아-북한’ 순서로 지칭한尹…달라진 외교 반영했나

박진도 ‘러북’…새 정부 들어 ‘가치 연대’ 앞세우며 ‘한일중’·‘미북’으로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면서 양국을 비판하면서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했다.

통상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는 두 국가를 ‘북한-러시아’(북러) 순서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표현에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해석을 낼 수 있겠는데 순서 자체를 특정해서 의식적으로 말씀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원고에 ‘러북’이라 써 있어서 순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이유를 여쭤보지 않았지만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려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양국가의 지침 순서를 의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도적으로 정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 정부 외교 기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느냐가 1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주변 4강 동맹의 역사, 우방국의 순서에 따라 부르게 되는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순서와 원칙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더 직접적 위협을 가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뒷자리에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러북 관계”가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3국을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으로 중국에 앞서 일본을 먼저 표기했다. 동북아 3국의 회의에서 자국을 가장 앞에, 이어 차기 의장국을 먼저 표기하는 원칙도 고려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외교 기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 들어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 일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미보다 미북으로 보고 있고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 한미 일 안보 협력이라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과 연대 강화가 중국-러시아-북한 간 연대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대륙 세력과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전략적 가치 판단도 깔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지난 6월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일본을 중국보다 앞세워 표기했다. / 송원기 기자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 발표하는 임태희 교육감

의정부 교사 사망 때 학교는 뭐했나 교장 등 징계 착수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을 당시 학교 측은 소속 교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알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2021년 12월 자녀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공개 사과를 할 것을 이 교사에게 요구했고, 이 교사가 학생 인권 문제로 난색을 보이자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학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이를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 이 교사가 이처럼 악성 민원을 겪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측이 이 교사 사망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 여부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순직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순직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해 결정하는 데 이 교사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도 교육청은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 오윤성 기자

김영호 장관, “핵실험 등 北중대도발 팬

9·19 군사합의 대응조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안 좋으면 9·19 합의를 파기할 생각을 정부 내에서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대응조치가 필요한 중대 도발의 예로 꼽았다.

그는 5년 전 9·19 군사합의 체결 후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한 것은 17건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이 여러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못하게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

응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상습마약’ 유아인, 두번째 구속심사…“큰 심려 끼쳐 죄송”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의 영장 심사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지난 5월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

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두 번째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으로 향했다.

2시간가량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잘 설명했다”고 답했다. 유씨는 경기 의왕 서구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그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 황연민 기자



한국환경공단은 지속 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 ESG경영을 실천합니다



ENVIRONMENT
탄소중립경영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환경경영

SOCIAL
사회책임경영

포용적 환경서비스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책임경영

Governance
준법윤리경영

공정존중의 가치를 구현하는
준법윤리경영

내년 4월 개통 GTX-A 미리 타보니…빠르면서도 안정감

심야 수서~동탄 GTX-A 열차로 17분에 주파…최대 속도 180km/h

막차 외에는 열차 운행이 모두 종료된 21일 오전 1시, 평소라면 적막할 서울 강남구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 플랫폼에 SRT 열차가 아닌 처음 보는 열차 한 대가 불을 환히 밝힌 채 서 있었다.

매끈한 하늘색과 흰색 도장에, 한눈에도 새것 같은 열차 옆면에 'GTX-A'로 고가 보였다. 길이 20m가량의 열차 칸이 총 8량 이어진 이 열차는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에 실제 투입될 차량이다.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은 이날 수서역과 화성 동탄역 사이 약 40km 구간을 시운전 중인 GTX-A 열차에 처음으로 시승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날 시승에는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과 SR 이종국 대표이사,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과 열차 제작사인 현대로템 임직원 등이 참여했다.

시운전은 새로 도입하는 열차 차량이 설계대로 만들어졌는지, 실제 운행과 유사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달리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수서~동탄 구간에서는 GTX-A 열차가 개통 이후 SRT와 선로를 함께 쓰게 되는데, 지난달 말부터 SRT 가 운행을 마친 심야 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운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운행이 안정화된 이후인 다음 달 17일부터는 주간에도 시운전할 예정이다.

이날 탑승한 열차는 한 칸에 무게 1.5t 가량의 물탱크 10여개씩을 싣고 있었다. 현대로템 이원상 레일솔루션연구소장



GTX-A 수서~동탄 구간 시운전 기념 촬영

(상무)은 “열차 정원인 1천62명(혼잡률 100%, 입석 포함)이 모두 탔을 때의 무게와 비슷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차 내부는 신형 지하철과 같이 좌석 위에 짐을 싣는 칸이 따로 없었다. 좌석 사이사이에 철제 분리대가 있고, 좌석 폭이 일반 지하철보다 약 3cm 넓은 점이 특징이었다. 출입문도 일반 열차보다 넓은 130cm 폭의 ‘와이드타입 도어’를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

GTX-A 열차의 운행속도는 최대 시속 180km로, 지하철의 2배 수준이며 준고속 열차인 ITX-청춘과 비슷하다.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정차·승하차 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한 평균 속도인 ‘표정(表定)속도’는 시속 101km로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른다.

GTX-A 열차가 한계까지 속도를 높이 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8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GTX-A 열차는 8량 중에서 4량이 추진력을 내는 ‘동력 분산식’이기에 다른 고속열차에 비해서도 가속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날 GTX-A 열차를 타는 내내 큰 흔들림이나 소음은 느끼지 못했다. 아무도 잡지 않고 서 있는 데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였다. 최대 속도에 가깝게 가속할 때도 터널을 지날 때도 소음과 진동이 특별히 심해지지는 않았다.

이원상 소장은 “출입문은 ‘리프팅 슬라이드’ 방식을 사용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했고, 창문도 고속철도와 같은 것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속도를 올렸는데도 기존 지하철이 조금 빨리 달리는 정도일 뿐 특별히 불편하지 않았다”며 “승차감이 생각보다 잘 갖춰진 것 같아서 우선 마음은 놓이지만, 전문가분들이 시운전 동안 깐깐하게

게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운전을 통해 수서에서 동탄까지 쉼 없이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7분. 성남·용인역이 개통되면 감속과 정차 시간 등이 더해져 28분이 소요된다. 이 소장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아침 시간을 돌려주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시간을 드리는 좋은 열차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출고된 GTX-A 차량은 우선 오송 시험 선로에서 5천km의 예비 주행 시험을 마치고, 지난 4~8월 중부내륙선에서 1단계 시운전을 거쳤다.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는 2단계 시운전을 마치면 다시 내년 2월까지 3단계 시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GTX-A 차량은 시운전 기준인 1만km의 3배인 3만km를 시험 주행할 예정이다. 무리하게 개통을 앞당기보다는 안전과 기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다.

이 소장은 “어제 자로 시험 주행 거리가 2만3천km를 넘었다”며 “과도하다 싶을 만큼의 시운전을 통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열차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GTX-A 노선은 내년 4월 수서~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위탁받아 건설 중인 GTX-A 삼성역 정거장이 오는 2028년 완공되면 전 구간이 개통된다.

/ 김호정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가 헌화하고 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시 7일내

교육감이 ‘정당성’ 의견 낸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된다.

교育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을 꾸리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에 따라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신고 사안과 관련된 학교를 찾아 교원·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하는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이를 문서화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보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과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안에 이뤄진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사안 조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안에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업무 안내서를 시·도 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 민정한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ncheon petrochem

202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작품명 세상을 지키는 선한 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은
에너지 공급과 자원의 재순환을 통해
세상을 선한 에너지로 채웁니다

*선한 에너지는 탄소를 줄여 나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혜택을 전하고자 하는 SK인천석유화학의 지향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그린픽처

“죄송하다” 대전 신협 강도, 베트남 출국 30일 만에 송환

베트남으로 출국한 지 3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된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21일 오전 대전서부경찰서에 도착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날 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대전으로 암송된 신협 강도 피의자 A(47)씨는 고개를 뚫고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심경을 밝혔다. 파란색 셔츠에 마스크를 한 채 검은 모자를 놀라쓰고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범행 이유와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나 공모 여부, 베트남 출국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훔친 오토바이와 택시 등 여타 이동 수단을 바꿔 가며 CCTV가 없는 길만 찾아 도주로를 확보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고 장갑을 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결국 범행 이를 만에 베트남 다낭으

로 출국했고, 이튿날 3천여 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국제 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로 탐문수사를 이어가던 중 지난 8일 현지 공개 수배로 전환했고, A씨를 다낭 카지노에서 봤다는 한인 제보를 받고 잡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0일 A씨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체포했다.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체포 당시에도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민준 기자

검찰 ‘불법 선거자금·뇌물’ 김용 정역 12년 구형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9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죄족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제 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 이석호 기자

추석 앞두고 택배·지인 메시지 증가…“절대 누르면 안 돼”

추석을 맞아 택배 배송이나 지인의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사기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문자와 메신저 이용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실수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승차권 증정 같은 내용의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URL을 누르게 되면 공격자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이 설치돼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전화나 영상 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신재일 기자

김행 “내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 강요했나…가짜뉴스”

‘낙태죄 입장’ 논란에 “무조건 출산해야 한단 생각 1초도 없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태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기습해명하면서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 병기 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가짜뉴스 퇴치부’ 장관 후보자 같다”며 “여성이 설사 강간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언론은 김 후보자의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 발언 내용을 인용해 그가 ‘강간당해 아이를 낳아도 받아들이는 낙태 금지 필리핀 정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가 제시한 해당 발언 전문을 보면 그는 당시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김 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틀러런스 (tolerance·관용)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본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에 있다. 이들은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로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발언을 문제 삼은 보도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강간 임신도 출산해야’라는 식의 제목으로 퍼졌고, 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지목하며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낙태 관련 발언이 담긴)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현재가 낙태를 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김 후보자의 낙태 관련 발언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그가 현재의 결정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 박현민 기자



21일 강서구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행 서약식에서 김기현 대표가 합당을 선언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축하하고 있다.

시대전환 조정훈, 국민의힘과 ‘동행’ 선언 “혁신 힘 보태겠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1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동행 서약식을 갖고 연대를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서약식에서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합류에 대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지난 4년 동안 시대전환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온 모든 동지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새로운 신당 창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양대 정당이 크게 바뀌어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3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지, 이대로 주저앉을지 위태롭게 서 있는 위기의 시대”라며 “결국 능력과 경험 있는 정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 송유영 기자

외교차관 “러북 중요 군사협력 물증 확인되면 독자제재 할 수도”

‘북러회담 설명 받았나’ 질문에 “이번주 하는 것으로 알아”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21일 북한에 대

합) 등 서방진영 또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제재 공조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보리 결의가 현재 작동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 EU(유럽연

한 직접적 군사지원 가능성성이 열리느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문에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해서는 한러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답변으로 같음하겠다”고만 답했다.

다면 장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량

살상무기(WMD) 관련 기술을 넘겨줬다는

물증이 증명되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

한이거나 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새로운 신당 창

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양대 정당이 크게

바뀌어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를 간

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3년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

갈지, 이대로 주저앉을지 위태롭게 서 있

는 위기의 시대”라며 “결국 능력과 경험

있는 정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통해 이 위

기를 함께 넘을 수 있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 배현주 기자

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해왔다.

한편 장 차관은 러시아로부터 북미 정

상회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느냐는 더불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이번 주에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한국이 원활 경우 김 위원장의 봉리 세부

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인테

르파스 통신이 지난 12일 보도한 바 있다.

/ 배현주 기자

원희룡 “이해찬·이재명이 편대 짜 서울~양평道 의혹 제기”

“감옥갈 수준의 비리의혹 뒤집어 씌운것…이재명과 악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알아보니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측근으로 이어진 편대를 다 짰더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추승호)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은 무책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제가 이재명을 한두 번 상대해 본 게 아니다”라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 갈수록 책임 뒤집어씌우기 프레임이 되고, 의혹을 총선

과 그 이후까지 무조건 끌고 갈 것이기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었다”고 했다. 또 “제가 압력을 받아서, 또는 아부하려고 멀쩡한 노선을 틀어서 만든 것으로 감옥에 갈 수준의 비리 의혹을 뒤집어씌웠다”면서 “털지 않은 상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악연이 활동했다”고도 했다. 서울~양평 고

속도로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

검증과 국민 의견이 거의 다 수렴되고 있

다”며 “민주당이 실사 우긴다 한들 국민들

이 혐오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이 마련된다

면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북핵 방어체계를 만드는 것

보다 자체 핵무기 개발이 효율적’이라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핵무장, 핵 군비 경쟁을 유발하

며 먼저 치고 나갈 필요는 없지만, 북핵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태세, 국제적인 한국

에 대한 안보 보장에 상응해 좀 더 적극적

인 부분을 열어놓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 황순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악연이 활동했다”고도 했다. 서울~양평 고

속도로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

검증과 국민 의견이 거의 다 수렴되고 있

다”며 “민주당이 실사 우긴다 한들 국민들

이 혐오되지 않을 정도의 기반이 마련된다

면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악연이 활동했다”고도 했다. 서울~양평 고

속도로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선 “전문가

검증과 국민 의견이 거의 다 수렴되고 있

다”며 “민주당이 실사 우긴다 한들 국민들

이 혐오되지 않을 정도의 기반

이 마련된다면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황순길 기자

통일부 “北주민 시체 1구 26일 인도 원해…통신선으로 답변 달라”

북한, 최근 시체 인도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해와



통일부는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체 1구를 발견해 북한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서 북한에 입장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인천 석모도 상리해안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시체 1구를 지난 10일 발견해 인근 병원에서 안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시체는 신장 170cm

남성이며, 복장과 배지, 메모 등 유물품으로 미뤄볼 때 북한 주민으로 추정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측은 인

도주의와 동포에 차원에서 시체와 유물

품을 판문점을 통해 오는 26일 오후 3시

북측에 인도하고자 한다”며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4월부터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이어서 언론을 통해 정부 입

장을 북측에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11월과 올해 6월에도 북한

주민 추정 시체를 발견해 북측에 인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무응답으로 일

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도 북측이 응

답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는 질문에 “각 지자체 단위 무연고자 장

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체가

발견된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화장하고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

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피폭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올해 11월까

지 총 89명 검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

다”며 “결과는 분석을 거쳐서 12월 말까

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

늘 기준으로 70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

다”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

으며, 의혹 해소 차원에서 개인정보 등 법

적 제약이 없다면 모든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심리지배 직접살인’ 인정안돼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유족 “이제는 좋은 곳에서 편안하길”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가 재점이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신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얼굴 가린 ‘계곡살인’ 이은해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윤씨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이은해 등이 적용 법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파기 환송될까 봐 걱정됐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며 “(윤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섶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다가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이은해는 보험사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 초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 조형민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의 셀카(왼쪽 사진)와 이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돌려차는 모습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1심 살인미수→2심 강간살인
피해자 “너그러운 양형 없애야”

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훔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이 사회적 논의 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

/ 이영찬 기자

공군 KF-16 전투기 이륙 중 기지내 추락…탈출 조종사 무사

‘조류 충돌’ 가능성 거론…공군 사고대책본부 조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 1대가 21일 오전 8시 20분께 임무를 위해 이륙하던 중 충남 서산 기지내에서 추락했다.

공군에 따르면 조종사 1명은 비상 탈출해 무사한 상태이며 병원으로 후송됐다. 추락 지점이 기지 내여서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문서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조종사는 통상적인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상학 공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 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있었을 가능성에 점쳐진다. 조류 충돌은 항공기 운항 중 새가 동체나 엔진 등에 부딪히는 현상이다.

공군은 맹금류인 매 울음소리나 ‘쾅’ 하는 폭발음을 녹음해뒀다가 전투기가 이륙하기 전 틀거나, 활주로 주변에 새를 쫓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류퇴치반을 운영한다.

그러나 인적이 드문 광활한 공군기지에 새들이 모여드는 걸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소지자 있다” 120차례 허위신고한 30대, 결국 구속

3년 전 허위신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전화를 걸다가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피출소에 발신 번호를 감춘 채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에 흉기를 가진 남자가 있다”, “여자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로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A씨가 장난 전화를 걸 때마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공권력을 낭비했다.

A씨는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사익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동영상을 찍는 사례가 있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현준호 기자



는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타페타민),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했다.

6월14일 전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3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4월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그는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

/ 박소희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기시다, 中시진핑과 연내 정상회담 여부에 “정해진 것 없다”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서 회견…“中과 긴밀히 의사소통”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21일 교도통신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모든 레벨에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달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이후 의견 대립을 지속하며 외교전을 벌여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오염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 협조를 위한 협력이 연설 초점이었다”며 “처리수에 대한 일본 입장은 국제사회 무대와 개별 회담 등에서 정중하게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필요성도 호소했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저지하 용납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

는 지금이야말로 보편적 국제기관인 유엔이 효과적인 과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다음 주 초반에 새로운 경제정책의 핵심적 내용을 제시하고 검토 작업을 본격화해 내년 중에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3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마인드가 지배한 일본 경제에 여러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구조적인 임금 인상과 민관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대담한 내용의 경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계에서 거론돼 온 종의원(하원) 조기 해산에 대해서는 “미룰 수 없는 문제에 한마음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지금은 그것 이외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 강성준 기자

미얀마 북부 강에서 100여명 탄 배 침몰…“최소 12명 사망”



2016년 친드원강 선박 사고 현장

승객, 승무원 모두 실종

미얀마 중북부 사가잉 지역 강에서 배가 침몰해 최소 1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21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 사정권은 지난 19일 친드원강에서 소용돌이로 배가 가라앉으면서 승객 6명과 승무원 3명 등 총 12명이 실종됐다고 전날 밝혔다.

현지 매체와 BBC 등은 이 배에는 약 100명이 타고 있었으며 시신이 최소 12구

발견됐다고 주민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정은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가잉 지역은 쿠데타 군부에 대한 저항 세력의 반격이 거센 곳으로, 군정이 인터넷을 자주 차단해 정확한 정보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는 친드원강에서 250여명을 태우고 가던 여객선이 전복돼 교사와 학생 등 7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는 정원이 약 120명인 선박에 과도하게 많은 승객이 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찬혁 기자



생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왼쪽)과 카밀라 왕비

프랑스 찾은 커밀라 英왕비 ‘올핑크’ “엘리자베스 2세 떠올라”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함께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커밀라 왕비가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연상시키는 연분홍색 의상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고 20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날 파리 외곽 오를리 공항에 도착한 커밀라 왕비는 영국 디자이너 피오나 클레어가 디자인한 연분홍색 코트를 입었다.

역시 연분홍색인 모자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런던에서 활동하는 모자 디자이너 필립 트리시가 제작한 것이다.

손에는 역시 영국 브랜드인 살럿 엘리자베스의 회갈색 핸드백을 들었다.

커밀라 왕비는 보통 크림색과 푸른색 코트와 드레스를 즐겨입는다는 점에서 이날 특별한 옷차림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를 두고 분홍색은 보통 출발의 의미를 나타내며, 특히 국외 순방을 떠날 때 그렇다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다.

/ 윤희진 기자

이후 첫 국빈 방문이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꺾끄러워진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낙관주의와 연결되는 분홍색 의상으로 이번 순방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는 시각이다.

텔레그래프는 또한 커밀라 왕비의 의상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기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2세는 2014년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국빈 방문했을 때 연분홍색 의상을 입었다. 그는 재임 기간 내내 좋은 감정을 고취하고자 할 때 분홍색 의상을 착용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왕실 거처에 첨거하던 엘리자베스 2세가 2020년 10월 7개월 만에 외부 일정에 나서 잉글랜드 남부 솔즈베리 인근의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를 방문했을 때도 분홍색 코트와 모자를 착용했다.

/ 윤희진 기자

中관영지 “한중일 고위급회의, 어렵게 얻은 기회…소중히 여겨야”

美 겨냥 “한일, 美와 보조맞추며 對中 공동대응 두드러져…3국 신뢰, 외부 힘에 흔들려”

중국 관영매체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고위급회의(SOM)에 대해 ‘어렵게 얻은 기회’라며 한국과 일본에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관영 환구시보는 21일 사설에서 한·중·일 고위급회의를 향해 “3년 이상 중단된 3국 협력 메커니즘을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지역에 드리워진 신냉전의 먹구름을 어느 정도 희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 모인 한중일 외교 수장

신문은 “3국이 꾸준히 쌓아온 신뢰의 모멘텀이 최근 외부의 힘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의 지정학적 지형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이 점점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유지하며 안보 딜레마의 위험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3국은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고고히 하고 외부 요인이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을 거부하며 범안보적 이슈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경제·기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인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신문은 “3국의 복잡한 관계는 이 지역이 직면한 도전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동북아 전진의 발걸음은 ‘소집단’에 얹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집단’은 미국의 동맹국 결집에 대한 중국식 비판 표현이다.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3국 간 협의체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상이, 중국에서는 농룡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3국이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 도원중 기자

“위험한 길 안내해 숨겼다”

미국서 유가족이 구글 상대 소송

미국에서 구글 지도의 길 안내를 따라 가던 운전자가 붕괴한 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구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숨진 필립 팩슨의 유가족들은 전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카운티 상급법원에 사

고 정보를 알면서도 이를 지도에 반영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필립 팩슨은 지난해 9월 30일 매티의 9번째 생일파티를 끝내고 구글 지도의 안내를 따라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9년 전에 붕괴한 뒤 방

치된 다리를 지나다 추락해 사망했다. 팩슨은 당시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구글 지도의 길 안내를 믿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다리 붕괴 신고가 있었음에도 구글이 이를 지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구글에 다리 붕괴 사실을 신고한 인근 주민들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사고 당시 다리 주변에는 붕괴 사실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차단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승진 기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 WAVE

0청년 × 테마 티켓 더 즐.

자녀분이
아직 청년이라면
꼭 물어보세요

넌 그냥 청년이야?
0청년이야?

0 청년 요금제 😊

데이터 최대 50GB 추가
매달 1회 커피 & 영화 50% 할인 / 로밍 50% 할인

0 청년 더 즐 프로모션 😊

무신사 만 원 쿠폰 / 테더링 데이터 2배
우티 택시 5천 원 할인 쿠폰 / 100% 당첨 기프트

0 day 😊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더 받는 푸짐한 혜택
(노티드 / 캐리비안베이 / 써브웨이 / CU & GS25 등)

유신사 및 티더링 푸짐 혜택 04-16-21 | 테더링 데이터 2배 프로모션 04-14-20 | 당첨 기프트 프로모션 04-04-21
당첨 기프트 및 티더링 푸짐 혜택은 7월 31일까지이며, 유신사는 7월 31일까지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 telecom

잠실우성 최고 49층 2천680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서울시 도시계획위…마포로5구역 10·11지구 25층 건물 조성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가 최고 49층 2천68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잠실우성은 1981년 준공된 29개 동 1천842세대 규모의 중층(15층) 아파트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299.93% 이하, 최고 층수 49층, 총 2천680세대(공공주택 342세대 포함)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다시 지어진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신설·정비하고 단지 내 탄천으로 갈 수 있는 공공

보행통로와 이와 연계한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구 종립동 157-2번지 일대의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마포로5구역 10·11지구는 1979년 9월 처음 재개발구역이 됐고 2021년 6월 10일 통합개발이 결정돼 추진 중이었으나 주택공급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바뀌어 이번 회의의 안건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대상지에는 연면적 약 9만9천㎡,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건물이 조성된다.

지상 2층~지하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3~25층에는 공동주택 299세대가 들어선다.

도로 기부채납을 통해 이면도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기부채납된 공원은 인근 지역 주민과 근로자의 쉼터로 활용한다. 또 서소문로 변과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이면부에 조성할 공원과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추가 설치하는 지하철 출입구는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로 계획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교통 악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의선숲길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

정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른바 '연트럴파크'라고 불리는 경의선숲길은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남게 된 상부 철도 유류 부지를 서울시가 2016년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공원에 걸맞지 않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돼 있었다.

이번 안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 조성 사업 당시 일부 누락되거나 오기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을 정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다음 달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 안병호 기자

BNK금융지주, 사상 최대 횡령 사고

경남은행 왜 통제 못 했나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사고가 여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인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BNK금융지주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다.

경남은행 직원 A씨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횡령한 금액은 지난 7월까지 562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면서 횡령 금액이 1천300억원으로 늘었다가 최종적으로 2천988억원으로 불어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가 허술한 자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왜 그대로 방치 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2014년 우리은행이 관리하던 경남은행을 인수한 후 여러 차례 부산은행과 통합을 추진했지만, 경남은행 노조와 지역사회에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전산 통합 문제도 '통합 수순'이라는 경남은행 노조의 반발과 관련 법령 미비로 어려움을 겪었다.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이지만 사실상 지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취임한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경남은행 출신이고 다른



경남은행 측의 반대의견에 부딪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경남은행은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이지만 사실상 지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취임한 예경탁 경남은행장이 경남은행 출신이고 다른

김영환·이범석 내달 10일 '오송 참사' 국감 증인 출석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 소명을 위해 국정감사장에 선다.

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두 단체장은 다음 달 1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국감에 일반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들을 상대로 오송 참사 당시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애초 두 단체장은 지난달 16일 행안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챔버리 부실 운영을 둘러싼 여야 대립



김영환 충북지사

으로 회의가 파행을 빚으면서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석에 동의하면서 국민의힘도 오송 참사 국감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 문성호 기자

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34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또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지사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화손해보험

서울시, 추석 명절 공영주차장 50개 무료 개방, 10월 3일까지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0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1일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종일 개방하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승용차 주차가 가능한 주요 개방 공영주차장은 송파구 신천유수지, 서초구 사당노외, 중구 남산한옥마을, 용산구 한강진역, 송파구 복정역 등 49개다. 관광버스 공영주차장인 적선노외 주차장도 종일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 명단은 서울시 설공단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 포털,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자치구에서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시행한다. 특히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다수의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 이지해 기자



우대 8천500원이다.

요금에는 DMZ 평화관광 요금이 포함되며, 중식비와 여행자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티투어 누리집(www.pjcitytour.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기코스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배용민 기자



10월 7일부터 용인경전철 청소년·어린이 운임 인하

구분	현재		조정		별도 운임
	교통카드	1회용 승차권	교통카드	1회용 승차권	
일반	1450원	1550원	1600원	1700원	200원
청소년	880원	1550원	800원	1700원	폐지
어린이	550원	550원	500원	500원	폐지

용인경전철 별도 요금 단계적 폐지

용인경전철, 청소년·어린이 기본요금 외 '별도 요금' 폐지…내달 7일부터 시행

용인경전철이 수도권 통합 환승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운임 수입 확보를 위해 부과해 온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외 '별도 추가 요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경기 용인시는 내달 7일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 시점에 맞춰 용인경전철 청소년·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별도 추가 요금을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인경전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시 성인 1천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에서, 각각 별도 요금 200원, 160원, 100원씩이 붙어 성인 1천4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이 된다.

내달 7일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인상되면서 용인경전철 기본요금은 성인 1천 600원(150원↑), 청소년 960원(80원↑), 어린이 600원(50원↑)이 되지만,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부과되던 별도 요금이 폐지되면서 청소년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어린이 승객의 요금은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 전인 지금보다 각각 80원, 50원 인상되는 셈이다.

성인 승객에게 부과되는 별도 추가 요금은 운임 수입 감소 최소화를 위해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시는 내년 10월 예고된 수도권 전철 요금 추가 인상 시점에 맞춰 별도 요금 전면 폐지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간 용인경전철 별도 요금제 폐지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해 왔으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운영 적자를 고려할 때 실행하기는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번에 수도권 전철 요금 인상으로 승객들의 부담이 늘게 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우선 청소년·어린이 대상 별도 요금을 폐지하고, 향후 성인 승객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용인경전철 이용객 1천14만여명 가운데 청소년·어린이 승객은 124만명으로 집계됐다. / 윤희철 기자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이 되도록

고객 한 분 한 분의 모든 하루,

나아가 푸른 자연까지

모두가 행복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ESG 경영

PEOPLE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PLANET 글로벌 기준의 친환경 경영 생태계 조성 등록
PROSPERITY 디지털 혁신 기반 지속가능 투자 GOVERNANCE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자체 조성

교통대와 통합 찬반투표 결과 놓고 충북대 내부 논란

대학 “통합중단 사유 없다”…학생 “압도적 반대 반영해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추진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 충북대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과 20일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교수(찬성률 70.9%)와 교직원(65%)은 통합에 찬성했으나 학생들은 반대율이 87.4%에 달할 정도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투표에 앞서 충북대는 3주체(학생, 교수, 교직원) 대표자 회의에서 세 주체 중 두 주체가 반대할 경우 통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 주체가 반대하는 상황에 대한 합의 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를 놓고 대학 측은 이번 투표에서 두 주체가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투표를 계기로 통합추진이



충북대 통합찬반투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대는 21일 간부회의를 열어 찬반 투표 결과 등을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고창섭 총장 등 대학의 주요 보직교수들은 통합을 전제로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합추진에 반대한 학생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비대위는 (공정한 투표를

위해)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러나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비대위는 대학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주체만 반대하는) 현 상황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3주체가 다시 합의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위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통합반대운동을 벌였던 통합반대연합도 성명을 통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압도적인 통합 반대 의견을 수용하라”며 오는 26일 통합반대집회를 예고했다.

충북대의 통합 파트너인 한국교통대는 학생(찬성률 72.4%), 교수(61.6%), 교직원(72.7%) 모두 통합에 찬성했다.

/ 양희진 기자

금호월드 임차인들 “광주신세계 확장 부지 도로 편입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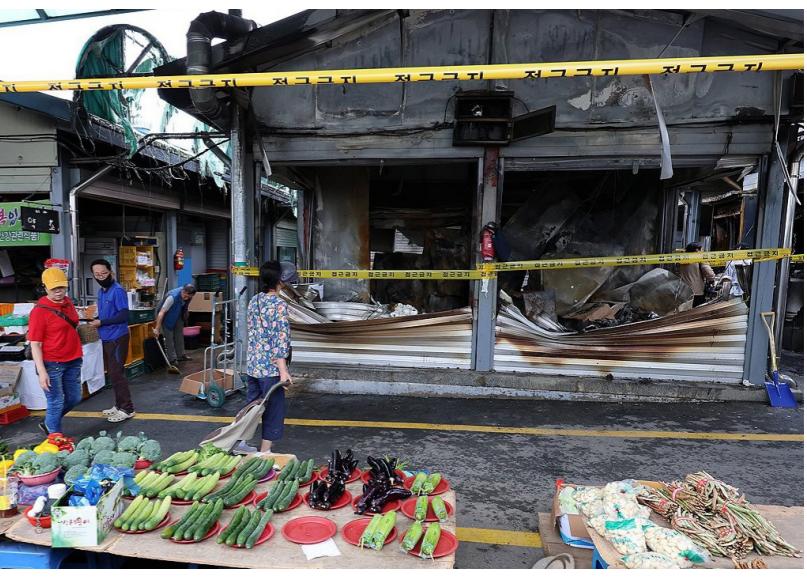
광주 금호월드상가총연합회와 서부시 장상인회는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신세계 확장·이전 과정에서 시 소유 도로를 편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최근 금호월드 3~5층 업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3층 100%, 4~5층 94.8%가 도로 편입을 반대했다”며 “광주 신세계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지역 상생을 위한 사전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상인과 세정아울렛 상인 등은 만나지 않고 금호월드 관리단과 협상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면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또 “광주시는 상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상인들과 공개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교통영향평가도 사전에 시행해 특혜가 없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금호월드 관리단은 이사회를 열고 금호월드 매입, 공동 재개발, 금호월드-광주시-광주신세계 3자 협의체 구성 등 협의안을 광주신세계에 제안했다. / 조정현 기자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화마에 고개 떨군 전통시장 상인

광주 비아 5일시장 점포 130칸 중 10칸 피해 입어

추석 대목을 맞아 21일 열린 광주 광산구 비아 5일시장 채소 골목, 대파와 양파 향 틈에 숨은 메캐한 탄내가 분주하게 오가는 손님들 발길을 따라 퍼지고 있었다.

북적이는 시장 속에서 외판 무인도처

럼 노란색 통제선이 둘러쳐진 숯검정이 점포에는 그을음 묻은 과일과 저울 등이 잡동사니처럼 나뒹굴었다.

불이 끼진 점포 안에서는 쓸만한 물건을 하나라도 건져내려는 상인들이 허리를 펼 새 없이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비아 5일시장에서는 전날 오후 7시쯤 화재가 발생했다. 전체 점포 130칸 가운데 10칸이 피해를 봤는데, 4칸은 완전히 불에 뒤이고 나머지 6칸은 일부 소실되거나 그을음이 묻었다. 불에 탄 점포 4칸 중 2칸에서는 80대 할아버지와 70대 할머니 부부가 과일과 채소를 팔았다. 다른 1칸에는 외국인 상인이 운영하는 식료품 판매점이 있고, 나머지 1칸은 비어 있었다. / 민도현 기자

불이 냄지 전 노부부의 점포에는 도매 시장에서 사온 과일과 채소가 가득 쌓여 있었다. 비가 내려 후텁지근한 날씨에 과일과 채소가 시들지 않을까 걱정한 노부부는 선풍기를 켜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소방 당국은 과열된 선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노부부의 40대 아들 A씨는 나이 든 부모를 대신해 이날 오전 시장 골목에 어지럽게 흘러진 잔해를 청소했다. 죄인이라도 된 듯 오전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는 A씨가 마음에 쓰였는지, 골목 맞은편에서 채소를 팔던 상인 한 명이 일손을 멈추고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A씨는 “정사 하셔야죠,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라며 양팔을 크게 내저었다.

다른 일을 하면서 가끔 부모의 점포 운영을 도왔다는 그는 “추석 대목에 부디 다른 상인들 장사만이라도 평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민도현 기자

환경연합 “롯데에 특혜주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재논의해야”

“부지 소유권 넘기면 기업에 이익…개발사업 공론화 필요”

전북 전주시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본 회의 의결을 앞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이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환경단체 주장이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는 롯데의 이익과 사업성만 키운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 동의안을 부결하고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크게 4가지 이유로 동의안이 시민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먼저 동의안은 경기장 전체부지의 27%인 3만3천㎡ 소유권을 롯데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당초 논의됐던 장기 임대 방식보다 대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롯데는 3천억 규모 전시컨벤션센터 건축비 중 2천억원을 부담하는데 이를 현금이 아닌 건축물로 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정산 방식에 따라 건물 원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롯데 계열사가 시공할 경우 ‘셀프 정산’ 우려도 있어 조건부 경쟁 입찰로 땅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시가 직접 컨벤션센터를 짓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환경연합은 부연했다.

여기에 동의안은 도시 재생과 기후 위기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컨벤션센터와 함께 짓는 호텔은 4성급이어서 마이스(MICE·회의, 전시, 컨벤션, 전시 행사)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 박서연 기자

환경연합은 “전주종합경기장은 예나 지금이나 시민의 땅이고 미래세대에 물려 줘야 할 사회적 자산”이라며 “시민의 요구와 삶의 질을 우선하고 전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히다”고 밝혔다. 전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동의안은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기존 기부·양여에서 대물변제 방식으로 바꿔 마이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에 시민 공원을 만들려고 했으나 민선 8기 들어 마이스 복합단지로 개발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 박서연 기자

강원경찰특공대 창설…테러·폭발물 24시간 신속 대응 가능

강원경찰청은 21일 춘천시 신북읍 강원경찰특공대 임시청사에서 특공대 창설식을 하고 본격적인 대테러 업무에 돌입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휴전선 또는 해안선을 접하고 있어 안보상 전략적 요충지이고, 도내 전역에 걸쳐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 취약 시설이 있음에도 경찰 자체 특공대가 없었다.

경기북부경찰청 특공대 지원을 받아 테러 신고에 대응해왔으나 거리 문제로 인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년간 자체 특공대 창설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 소요 정원과 예산 등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봤다.

강원경찰특공대는 전술팀, 폭발물처리

팀, 폭발물탐지팀 등 25명으로 꾸려졌다. 대원들은 테러 사건 예방·진압부터 폭발물 처리,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같은 국가 중요 행사 시 안전한 진행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맡는다.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

록 24시간 대응체계도 갖췄다.

김도형 청장은 “가장 긴박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부단한 훈련과 연습으로 각종 위기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황민우 기자

스쿨존에선 교통안전 100점 [운전자]가 되어 주세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가·나·다 캠페인
어린이, 운전자 모두 함께 실천해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해 주세요



강원경찰특공대 창설식

선수촌에 올려 퍼진 애국가…한국선수단 공식 입촌식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AG) 개막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와 임원들이 21일 중국 항저우시 아시안게임 선수촌 국기 광장에서 열린 입촌식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19회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수촌 공식 입촌식이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21일 오전 중국 항저우 선수촌 국기 광장에서 열렸다.

최윤 선수단장, 장재근 부단장(전체 국가대표선수촌장) 등 선수와 임원 약 30명은 요르단, 시리아, 예멘과 함께 선수촌 입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훈련이 없던 여자 기계체조, 스케이트보드, 탁구, e스포츠 선수 24명이 이 대회에 파견된 한국 선수단 1천140명을 대표해 태극기를 흔들며 입촌식장에 들어섰다.

2011년 4월생으로 이번 한국 선수단에서 두 번째로 어린 문강호(강원도롤러스포츠연맹)가 한국 선수단의 '마스코트'로 시선을 끌어모았다.

북소리에 맞춰 손님을 환영하는 사자춤, 우슈 공연단의 환대 속에 국기 광장에 차례로 입장한 한국 선수단은 춘식동 선수촌장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국기 광장 왼쪽에 있는 계양대에서 태극기가 깃대를 타고 올라가자 우비를 입은 한국 선수단은 경건한 자세로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춘식동 선수촌장은 청색 도자기를 입촌 선물로 최윤

단장에게 전달했고, 최 단장은 한국의 명과 미를 알릴 선물로 직접 고른 단원 김홍도의 화첩을 담례 선물로 건넸다.

전날 한국 선수단 본진과 항저우에 도착한 최윤 단장은 "선수촌 시설도 좋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혼란스러웠던 2020 도쿄 하계 올림픽 때와 비교하면 이번 대회는 현재까지 아주 순조롭게 일이 풀리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근 부단장은 "공식 입촌식에 참석하니 이제 개막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실감한다"며 "선수, 지도자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을 때보다 더 떨리고, 우리나라의 도전이 쉽진 않겠지만, 어제 근대 5종 이지훈(LH)이 남자 랭킹 라운드에서 1위에 오르며 단추를 잘 끼웠기에 한국 선수단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선수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50개 이상을 따내 2위가 유력한 일본과의 격차를 최대한 좁힌 3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영, 양궁, 소프트테니스, 바둑 등 강세 종목을 앞세워 5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부진을 만회하고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올림픽의 새 희망을 쏘아 올리겠다는 각오로 개막 이틀째인 24일부터 벌어질 본격적인 경쟁의 출발선에 선다.

/ 최준용 기자

드 품 경기를 치른다. 이번 31라운드 맞대결이 팬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두 팀의 현재 상황 때문이다.

광주는 '승격팀 돌풍'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반면 K리그1 9회 우승에 빛나는 전북은 좀처럼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싶은 광주와 부진 탈출이 절실했던 전북 모두 승리가 절실했다. 30라운드까지 3위 광주는 승점 48을 기록, 2위 포항 스텔러스(승점 56)를 승점 8차로 압박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해 K리그2 우승으로 이번 시즌 K리그1에 합류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시즌 초반 과감한 공격축구로 승점을 쌓다가 8~14라운드까지 7경기 무승(3무 4패)에 빠져 '승격팀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광주는 15라운드부터 16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패(9승 6무)만 기록할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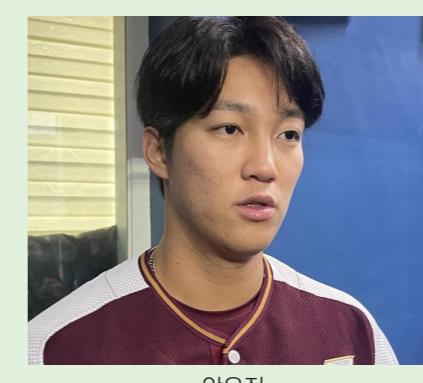


맞았던 광주는 지난해 K리그2 우승으로 이번 시즌 K리그1에 합류했다.

도로 무섭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10 경기에서 5승 5무를 따내며 3위까지 올라섰다. 10경기 동안 지지 않은 광주FC와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전북 현대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친다.

광주는 24일 오후 2시 광주전용구장에서 전북과 2023 하나원큐 K리그1 31라운드 홈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패(9승 6무)만 기록할 정

안우진, 미국서 '류현진·오타니 집도의'에게 21일 수술



엘라트라체 박사로 미국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명의(名醫)다.

클레이턴 커쇼, 조니 쿠에토, 앨버트 푸홀스 등 미국 메이저리그(MLB)를 대표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북미프로풋볼(NFL) 톰 브래디 등 여러 종목 선수와 인연을 맺었다.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은 2015년 어깨 관절외손 수술과 2016년 팔꿈치 과사 조직 제거 수술, 지난해 토미존 수술 모두를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맡겼다.

엘라트라체 박사는 20일 오타니 쇼헤이(로스엔젤레스 에인절스)의 토미존 수술까지 집도했다.

오타니의 오른쪽 팔꿈치 인대를 손본 엘라트라체 박사는 곧바로 안우진

을 위해 메스를 잡는다.

안우진은 미국 현지에서 수술받은 뒤 잠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곧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재활 훈련을 시

작한다.

토미 존 수술을 받은 선수가 마운드

에 복귀하기까지는 12개월에서 18개

월가량 걸린다.

안우진은 재활 기간에 병역까지 소

화한 뒤 키움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균 기자

'10경기 무패' 광주 vs '5경기 무승' 전북…승리가 필요해!

2위 추격하는 광주·6위 지키려는 전북 24일 맞대결

10경기 동안 지지 않은 광주FC와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전북 현대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친다. 광주는 24일 오후 2시 광주전용구장에서 전북과 2023 하나원큐 K리그1 31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이번 31라운드 맞대결이 팬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두 팀의 현재 상황 때문이다. 광주는 '승격팀 돌풍'을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 반면 K리그1 9회 우승에 빛나는 전북은 좀처럼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싶은 광주와 부진 탈출이 절실했던 전북 모두 승리가 절실했다. 30라운드까지 3위 광주는 승점 48을 기록, 2위 포항 스텔러스(승점 56)를 승점 8차로 압박하고 있다.

2021년 K리그1 끝자리 2부리그 강등을

맞았던 광주는 지난해 K리그2 우승으로 이번 시즌 K리그1에 합류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시즌 초반 과감한 공격축구로 승점을 쌓다가 8~14라운드까지 7경기 무승(3무 4패)에 빠져 '승격팀의 한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광주는 15라운드부터 16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패(9승 6무)만 기록할 정

도로 무섭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10

경기에서 5승 5무를 따내며 3위까지 올라섰다. 10경기 동안 지지 않은 광주FC와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전북 현대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친다.

광주는 24일 오후 2시 광주전용구장에

서 전북과 2023 하나원큐 K리그1 31라운

KBL 득점·리바운드·어시스트 등 개인 타이틀 20년만에 부활

프로농구에서 득점·리바운드·어시스

트 등 계량 부문 기록상이 20년 만에 부

활한다.

KBL은 2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

서 제29기 정기총회 및 제4차 이사회를

열고 2023-2024시즌부터 6개 계량 부문

개인상을 재시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

다.

KBL은 또 기존 개인 타이틀 중 수비5

걸, 심판상 등을 없애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수원 kt의

구단주를 김영섭 대표이사 사장으로 변경

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사회에서는 2023-2024시즌 대회운

영 요강 및 유니폼 규정을 통과시켰다.

/ 남영철 기자

세대를 잇다, 인연을 연결하다

더 현대적인 선물

"선물의 중요한 부분은 사람에게 마음을 남기고, 마음 안에 그 사람을 남기는 것이겠지요."

- 세프 선우 배 박찬일, 박준우

2023 추석 명절 행사 | 9. 11 ~ 9. 28

안부를 전하는 '파일'과
안목을 더한 '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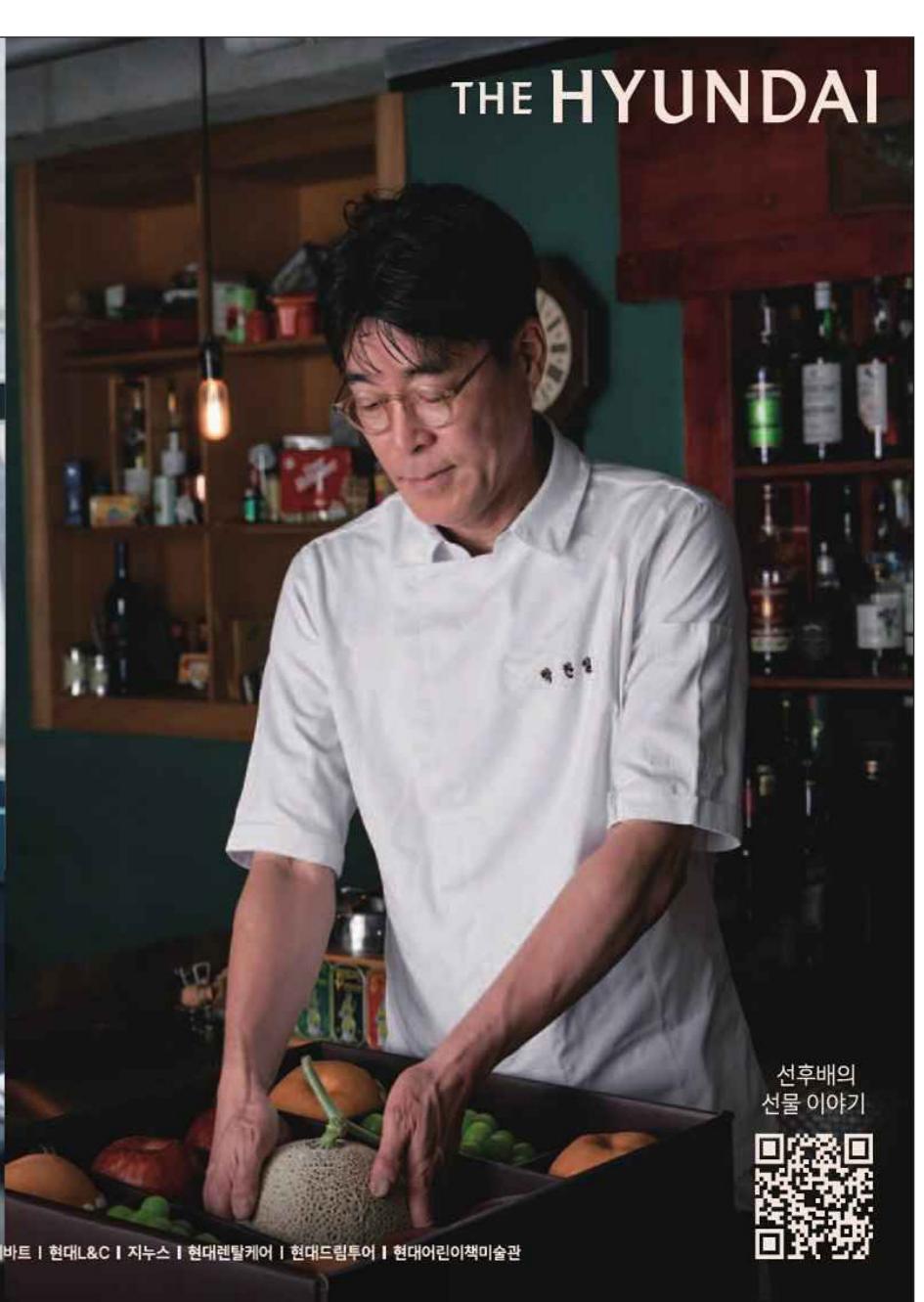


현대명품 혼합과일 특 (67-01)
라 크레마 NR (124-06)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닷컴 | 현대리바트 | 현대L&C | 지누스 | 현대렌탈카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아린이책미술관



선우 배의
선물 이야기



BTS 전원, 두 번째 재계약…군 복무 후에도 함께 간다

하이브, 순차적 재계약 체결…소속사, 유니세프한국委에 10억원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BTS) 일곱 멤버 전원이 소속사인 하이브(빅히트뮤직)와 두 번째 재계약을 맺는다.

하이브는 20일 “당사는 빅히트뮤직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 멤버 7인의 전속 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의 이사회 결의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빅히트뮤직은 이 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과 전속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다. 이는 일부 멤버가 군 복무 중인 때문으로 전해졌다. 멤버 전원의 재계약 의사는 확실한 상태로 절차적인 부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일부 멤버의 병역 이행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현재 군 복무 중인 멤버는 새로운 전속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2025년에는 병역 의무를 마친 상태가 된다”고 전했다.

2013년 6월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전속



그룹 방탄소년단(BTS)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인 2018년 10 월 소속사와 조기에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멤버 전원이 두 번째 재계약을 맺기로 하면서 군 복무를 마친 2025년 이후에도 팀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는 방탄소년단은 K팝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꼽힌다.

‘힙합 아이돌’ 콘셉트로 가요계에 등장 한 이들은 2018년 K팝 가수 최초로 빌보

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새 역사를 써왔다.

방탄소년단을 발굴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3월 관훈포럼에서 이들의 두 번째 재계약 여부에 대해 “방탄소년단 정도 그룹의 재계약은 사회적 파장이 커서 조심스럽다”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특명성을 위해 계약 기간을 공개해왔고, 아직은 좀 남아 있다. 그 기간에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가 끝나고 말하는 게 아티스트와 팬에 대한 예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부터는 단체 활동과 개인 활동을 병행하는 제2막에 들어갔다. 멤버들의 솔로 작품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는 등 좋은 성과를 얻었다.

하이브는 “재계약 체결을 계기로 2025년으로 희망하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며 “하이브와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과 팬덤 ‘아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1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방탄소년단이 시작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캠페인을 통해서 진행된다.

/ 김채원 기자



김조한·뮤지 슬로 모션

김조한·뮤지, “5분 넘는 신곡 마음 움직이는 손편지 같은 음악”

무엇이든지 ‘휙휙’ 빨리 지나가고 노래 길이마저 어지간해서는 3분을 넘지 않는 요즘, 이에 반기라도 들듯 5분 30초에 육박하는 음악을 내놓은 이색 듀오가 등장

했다. 바로 ‘알앤비 대디’(R&B Daddy) 김조한과 음악 프로듀서 뮤지가 한데 뭉친 프로젝트 그룹 ‘슬로 모션’(Slow Motion)이다.

이들은 ‘느리면서도 묵직한’ 정통 흑인 음악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해 동료 가수와 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슬로 모션의 김조한과 뮤지를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인터뷰했다.

“손 편지를 마지막으로 언제 받아보셨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적힌 손 편지요. 글씨만 봐도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손 편지 같은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김조한)

김조한은 팀 이름의 의미를 묻자 냅다

‘손 편지’와 ‘종이책’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사람들이 일부러 ‘빨리 빨리’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의지와 다르게) 시간이 없어 느리게 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 이은정 기자

올해 마마어워즈 도쿄돔서 개최 “국내 시상식 최초”

올해 엠넷 마마 어워즈가 국내 시상식 가운데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된다.

엠넷은 21일 “2023 마마 어워즈를 11월 28~29일 일본 도쿄돔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며 “국내 시상식이 일본 도쿄돔에 입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도쿄돔은 5만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으로 가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린다.

마마 어워즈는 마카오와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각지에서 개최해왔다. 작년 교세라 돔 오사카에 이어 올해는 도쿄돔에서 개최해 2년 연속 일본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디지털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심준범 CJ ENM 음악콘텐츠본부장은



김호중 3번째 영화 ‘바람 따라 만나리’

내달 CGV 단독 개봉

가수 김호중의 영화 ‘바람 따라 만나리’는 김호중의 계절’이 다음 달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제작사 CJ 4D플렉스가 20일 밝혔다.

6개 도시에서 열린 김호중의 첫 전국 투어 ‘2022 김호중 콘서트 투어 아리스타’ 무대와 이후 김호중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김호중이 직접 전하는 콘서트 뒷이야기와 팬들을 향한 메시지도 들을 수 있다.

이번 영화는 2D뿐만 아니라 CGV 특별관인 스크린X를 통해서도 상영된다. 공연 실황을 정면과 좌우까지 이어지는 스크린으로 감상하도록 해 콘서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살렸다.

김호중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가 나오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팬



미팅 실황을 담은 ‘그대, 고맙소 :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2020), 단독 공연으로 꾸민 ‘인생은 뷰티풀: 비타들체’ 등이 개봉했다. 두 영화는 각각 누적 관객 10만여 명, 5만2천여 명을 동원하며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 정유진 기자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 문의: 1533-1545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World Expo 2030 Candidate

www.busan2030.or.kr

www.busan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KBGood Job

오늘의 취업준비를



KB굿잡 취업박람회 KB국민은행이 주최하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5천여 개의 우수기업과 117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약 3만 5천여 건의 일자리를 연결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응원합니다



내일의 출근준비로



2023 KB굿잡 부산 잡(JOB) 페스티벌

2023. 10. 18.(수) 부산 BEXCO 제1전시장

주최 부산광역시 KB국민은행 주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KEF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BWA 새부산벤처기업협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테크노파크 동반상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국제貿易促進會 코스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지원의회 후원 국방부 교육부 대한민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KB금융공익재단

* 자세한 내용은 KB굿잡 홈페이지(<https://kbgoodjob.kbstar.com>)에서 확인하세요.

KB 국민은행